

보도 일시	2022. 11. 9.(수) 09:00	배포 일시	2022. 11. 9.(수) 09:00
담당 부서	국립산림과학원	책임자	과장 김인식 (031-290-1121)
	임목자원연구과	담당자	연구사 이경미 (031-290-1123)

탄소 흡수 능력 높은 붉가시나무로 기후변화 대응한다

-국립산림과학원, 난대수종 붉가시나무 종자 생산 위한 우량임분 선발-

- 붉가시나무는 국내 상록성 참나무류 가운데 가장 넓게 분포하는 수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산소 발생량도 높다.
- 이에,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박현)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의 조림지를 확대하기 위해 우량한 임분을 전남 도서 및 제주 지역 등에서 최종 5개소를 선발했다고 밝혔다.
- 임분은 나무의 종류, 나이, 생육 상태가 비슷하여 주위의 다른 숲과 구분되는 숲을 말하며,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종의 선발과 육성 그리고 종자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량임분을 선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.
- 국립산림과학원은 붉가시나무 임분 탐색 연구를 통해 전남 도서와 제주 등 11개 지역에서 16개소의 후보 임분을 선정하였고, 그중 해남, 제주, 완도 지역 내 우량한 임분 5개소를 최종 선발했다. 이들 우량임분은 채종임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.
- 우량임분을 선발하기 위해서 임분의 성장과 적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임분 고유 특성 척도와 종자 수확 접근성과 개화·결실 등의 종자 생산·관리 특성 척도를 기준으로 각 임분을 평가한 결과이다.

□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“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수종 육성 연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.”라며 “미래 환경대응 수종 육성을 위한 지속적 연구 추진과 함께 관련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첨부 사진 1. 붉가시나무 임분유형 구분
사진 2. 붉가시나무 우량임분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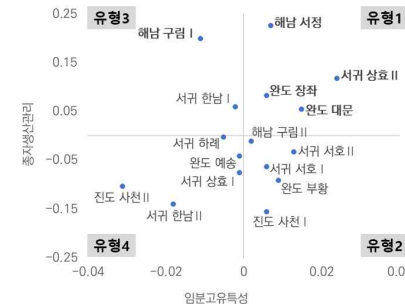


사진 1. 붉가시나무 임분유형 구분

사진 2. 붉가시나무 우량임분 전경